‘맨큐의 경제학’ 따라 읽기 6

화폐, 통화제도 그리고 가상화폐

글. 권태혁 아리랑국제방송 기술센터 부장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서 이상한 기호와 그림, 몇몇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이 그려진 종이 몇 장을 주인에게 지불한다. 식당의 주인들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 없는 종이 몇 장을 받고 기꺼이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현대 경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적 관행에 익숙하다. 화폐라는 종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그것을 받은 식당 주인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지불하고 그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그리고 그다음 사람은 그다음 다음 사람이 그 화폐를 받아들일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 종이를 받고 물건을 판다. 이런 식으로 화폐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태어나서 자라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너무도 당연한 듯 보이지만, 사실 사회 전체가 그 종이의 가치에 대해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역사 속에 등장했던 모든 국가는 그 영토 내에서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단일한 무력을 행사하며 질서를 유지했다. 이와 동시에 그 나라의 화폐를 발행하고 유지해 왔다. 화폐에 대한 모두의 신뢰의 밑바닥에는 단일한 무력인 국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화폐를 차지하기 위해 친구나 가족들을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는 전 세계 지정학적 요충지의 미군 기지와 항모 전단,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으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화폐에 대한 신뢰는 무력으로부터 온 것이다.

화폐의 의미

화폐, 즉 돈이란 무엇인가? 참 이상한 질문이다. 우리는 억만장자 마크 저커버그가 돈이 많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은 다 살 수 있을 정도로 부

자라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돈은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화폐라는 단어를 보다 구체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화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자산을 말한다. 여러분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은 화폐다. 식당에서 외식을 하거나 옷가게에서 티셔츠를 사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가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부유할지는 모르지만 이 자산은 화폐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이 주식을 현금으로 바꾸기 전에는 주식으로 외식을 하거나 티셔츠를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의 정의에 따르면 화폐는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몇 가지 유형의 자산을 말한다.

화폐의 기능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 회계의 단위, 가치의 저장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화폐는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주식, 채권, 부동산, 예술품 등 다른 자산과 구별된다. 화폐의 세 가지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자.

- 교환의 매개수단이란 재화나 서비스를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주는 지불수단이다. 옷가게에 가서 티셔츠를 사고 돈을 내는 것처럼 물건을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함으로써 거래가 성사된다. 상점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상점 주인이 우리가 가진 돈을 받고 물건을 내주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화폐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교환의 매개수단이기 때문이다.
- 회계의 단위란 물건 가격을 정하고 채무를 기록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다. 티셔츠 한 장의 가격이 50달러이고, 햄버거 한 개의 값은 5달러라고 하자. 이 경우 티셔츠 한 장의 가격은 햄버거 열 개이고, 햄버거 한 개의 값은 티셔츠의 1/10 장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물건값을 이런 식으로 표시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원리금 상환액도 재화나 서비스의 수량이 아닌 화폐 단위로 표시한다. 이와 같이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표기할 때는 화폐를 회계의 단위로 사용한다.
- 가치의 저장수단이란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하는 데 이용되는 수단을 말한다. 한 사람이 지금 물건을 팔고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물건을 사는 데 사용할 수 있으므로 화폐는 가치의 저장수단이다. 화폐가 가치의 유일한 저장수단은 아니다. 화폐 대신 주식이나 채권 같은 다른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폐와 여타 자산을 포함한 모든 가치의 저장수단을 일컬어 '재산'이라고 한다.
- 유동성은 어떤 자산을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화폐는 일반적인 교환의 매개수단이므로 유동성이 가장 큰 자산이다. 다른 자산의 유동성은 자산마다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주식이나 채권은 적은 비용으로 쉽게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비교적 높은 자산이다.

사람들이 재산을 어떤 형태로 보유할지 선택할 때는 각 자산의 유동성과 가치의 저장수단으로써 유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화폐는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지만 가치의 저장수단으로서는 결함이 많다. 물가가 오르면 화폐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물건값이 오르면 여러분 지갑 속의 지폐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든다.

화폐의 종류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물건이 화폐로 통용될 때 그 화폐를 물품화폐라고 한다. 여기서 자체적인 가치는 그 물건이 화폐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지니고 있을 가치를 말한다. 물품화폐의 예로 금을 들 수 있다. 금은 공업용이나 보석 세공용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오늘날에는 금을 화폐로 사용하지 않지만 금은 운반, 무게 측정, 위조품의 구별이 쉽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널리 화폐로 사용되었다. 어떤 경제가 금이나 금으로 교환될 수 있는 지폐를 교환될 수 있는 지폐를 화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경제는 금본위제도(gold standard)를 운영한다고 말한다.

물품화폐의 또 다른 예는 담배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포로들은 포로수용소에서 담배를 교환의 매개수단, 회계의 단위,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삼아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팔았다. 1980년대 말 구소련이 붕괴할 때도 모스크바에서는 담배가 루블화보다 인기 있는 화폐로 통용되었다. 두 경우 모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담배를 거래대금으

로 받아들였는데, 이는 담배가 다른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는 화폐를 법화(fiat mony, 法貨)라고 한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돈이 법화다. 법화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통용되는 화폐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지갑에 들어 있는 지폐와 부루마블의 씨앗은행에서 발행한 지폐를 생각해보라. 음식점에 가서 외식하고 한국은행의 지폐를 내면 받지만 부루마블 지폐를 내면 받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한국은행권을 적법한 화폐로 정했기 때문이다.

법화제도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폐 위조범을 처벌하는 등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다른 조건들도 충족되어야 한다. 법화의 수용성은 정부의 법령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상과 사회 관습에도 영향을 받는다.

화폐의 양

경제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양, 즉 통화량은 여러 경제변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통화량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에게 통화량을 측정하라는 과제가 주어졌다면 어떤 것들을 화폐에 포함하겠는가? 화폐에 포함되는 가장 명백한 자산은 현금, 즉 일반 국민의 수중에 있는 지폐와 동전일 것이다. 현금은 분명히 경제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교환의 매개수단이다. 따라서 현금이 통화량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금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은 아니다. 많은 상점에서는 개인수표도 받는다. 요구불예금 계좌(입출금통장)에 들어 있는 재산은 지갑 속에 있는 현금과 거의 마찬가지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편리하다. 따라서 요구불예금(demand deposits) 잔액, 즉 개인수표를 발행하거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인출할 수 있는 은행 예금 계좌의 잔액도 통화량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요구불예금 잔액이 통화량에 포함된다면 은행과 여타 금융기관에 있는 여러 가지 계좌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계좌 잔액을 토대로 수표를 발행할 수는 없지만, 저축예금 계좌 잔액을 요구불예금 계좌로 쉽게 이체할 수 있다. 게다가 MMMF(Money Market Mutual Fund : 시장이자율에 연동된 예금 상품) 잔액에 대해서는 수표 발행이 허용된다. 따라서 이런 예금 계좌도 통화량에 포함되어야 한다.

복잡한 경제에서 화폐와 화폐가 될 수 없는 다른 자산들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 주머니의 동전은 분명히 통화량에 포함되고, 제2 롯데월드 타워는 분명히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양극의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은 통화량에 포함되어야 할지 아닐지 분명하지 않다. 대체로 가

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통화지표인 M1과 M2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 M1 : 현금, 요구불예금, 여행자수표, 기타 수표발행가능예금
- M2 : 저축예금, 소액정기예금, MMMF, 기타

M1과 M2 어느 쪽을 사용하든 지금 설명하는 내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중요한 사실은 현금은 물론, 쉽게 인출할 수 있고 재화와 서비스 구입에 사용 가능한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 예금도 통화량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어떤 나라 경제든 법화제도를 운영하려면 그 제도를 통제하고 책임을 지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이 역할을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줄여서 Fed)가 맡고 있다. 연방준비제도는 은행제도를 감독하고 통화량을 통제하는 기구, 즉 중앙은행의 한 예다. 세계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에는 영란은행(bank of England), 일본은행, 유럽 중앙은행, 한국은행 등이 있다.

연방준비제도의 구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1913년에 창립되었다. 연방준비제도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운영하는데,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7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들의 임기는 14년이다. 대법원 판사들을 정치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종신 임기를 보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단기적인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기 위해 이사들에게 긴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의장이다. 의장은 연방준비제도의 직원들을 관장하고 이사회를 주재하며, 정기적으로 소위원회에 참석해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에 대해 증언한다.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다.

연방준비제도는 워싱턴에 본부를 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미국 주요 도시에 위치한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으로 구성된다.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는 그 지역 은행과 민간업계 인사들로 구성된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이사회가 선임한다.

연방준비제도는 두 가지 연관된 직무를 수행한다. 첫째, 은행을 규제하고 은행제도의 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일은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이 주로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방준비제도가 각 은행의 재무 상태를 감시하고, 어음교환을 통해 은행 간 거래를 지원한다. 연방준비제도는 은행들이 자금을 빌리고 싶어할 경우 자금을 대출해주는 은행의 은행 역할도 수행한다. 재무 상태가 부실한 은행에 단기 자금이 필요할 때 연방준비제도는 은행제도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종 대부자(貸付者) 노릇을 하는 셈이다. 둘째, 더욱 중요한 직무로는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의 공급량, 즉 통화량을 조절한다. 화폐 공급에 관한 정책담당자들의 의사결정이 통화정책이다. 연방준비제도에서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다. FOMC는 6주에 한 번씩 워싱턴에 모여 경제 상황에 대해 토론하고 통화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다. 주식투자 경력이 좀 된 분들은 이 FOMC의 통화정책에 따라 주가가 방향을 재설정하는 과정들을 많이 보셨을 것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사 7명과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 5명으로 구성된다.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권한이 있다. 쉽게 비유하면 연방준비제도는 지폐를 인쇄해서 헬리콥터로 전국에 뿌리기도 하고, 거대한 진공청소기로 사람들의 지갑에 있는 지폐를 빨아들이기도 하는 것이다. 실제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는 방식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하지만, 앞의 비유는 실재 통화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연방준비제도가 사용하는 주된 수단은 공개시장조작이다. 공개시장조작이란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정부의 채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정부채권은 연방정부의 채무증서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통화량을 늘리기로 결정하면 연방준비제도가 달러를 발행하여 채권시장에서 민간으로부터 국채(연방정부채권)를 사들인다. 연방준비제도가 국채를 매입한 결과 새로운 달러들이 민간의 수중에 들어감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한다. 반대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통화량을 줄이기로 결정하면, 연방준비제도는 채권시장에서 국채를 매각한다.

이 매각대금을 받게 되면 시중의 달러가 민간으로부터 환수되어 통화량이 감소한다. 중앙은행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화량의 관리를 책임지는 기구다.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중에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이 있다. 또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는 중요한 원리도 있다. 중앙은행의 힘은 이 두 원리에서 나온다. 중앙은행의 정책결정은 장기 인플레이션율과 단기고용, 생산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은행과 화폐공급

지금까지 우리는 화폐의 개념과 중앙은행이 국채의 매입과 매각이라는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한다는 설명은 옳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이러한 설명에는 시중은행 전체가 화폐공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간과되기 때문이다.

100% 지급준비제도

은행들이 화폐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은행이 전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에서는 현금이 유일한 화폐다. 구체적으로 현금 총액이 100달러고, 따라서 통화량도 100달러라고 하자. 이제 한 사람이 제1 은행이라는 최초의 은행을 설립한다고 하자. 이 은행은 예금만 받고 대출은 하지 않는 예금은행이다. 이 은행의 목적은 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이 은행 예금 중에서 대출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준비금(reserves)이라고 한다. 이 가상의 경제에서는 모든 예금이 지급준비금으로 보유되므로 100% 지급준비제도를 운영한다고 말한다.

제1은행의 자금 상태는 T-계정(T-account)으로 표시할 수 있다. T-계정의 좌변에는 은행의 자산(금고에 보관된) 100달러가 있고, 우변에는 은행의 부채(예금자가 요구하면 돌려줘야 할 현금) 100달러가 기록되어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자산과 부채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이 계정을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라고 부른다. 이 가상적인 경제의 통화량을 계산해보자. 제1 은행이 설립되기 전에 이 경제의 통화량은 사람들이 보유한 현금 100달러다. 이제 은행이 영업을 개시하고 사람들이 현금 100달러를 은행에 예금하면 통화량은 요구불예금 잔액인 100달러가 된다. 이제 은행 금고 밖에서 유통되는 현금은 하나도 없다. 은행에 예금된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 현금이 줄고 요구불예금은 늘어난다. 따라서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즉 은행이 모든 예금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면 은행은 화폐공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분지급준비제도와 통화 창출

제1 은행은 궁극적으로 100% 지급준비정책이 최선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사람들이 예금한 돈을 고스란히 금고에 묵히지 말고 대출을 해주면 어떨까? 새집을 사려는 가정이나 새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 학교 등록금을 마련하는 학생들은 기꺼이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려 할 것이다. 물론 제1 은행은 예금자들이 예금을 인출하러 찾아올 경우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그러나 새로 들어오는 예금의 규모가 인출 규모와 비슷하다면 예금액의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1 은행은 이른바 부분지급준비금제도 방식의 은행 영업을 채택한다. 예금 중에서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금액의 비율을 지급준비율(reserve ratio)이라고 한다.

제1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10%라고 하자. 이 경우 제1 은행은 예금의 10%를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90%를 대출한다. 이 은행의 T-계정을 다시 살펴보면 좌변의 자산에 지급준비금 10달러와 대출금 90달러가 있고 우변은 전과 같이 예금자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 100달러가 있다. 그러나 이 은행의 자산은 이제 두 종류다. 하나는 금고에 보관된 지급준비금 10달러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에게 빌려준 대출금 90달러다. 대출금은 대출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채지만, 은행의 입장에선 차입자들에게 돌려받을 돈이므로 자산이다. 전체적으로 제1 은행의 자산과 부채는 여전히 일치한다.

이제 이 경제의 통화량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제1 은행이 대출을 하기 전에는 통화량이 은행 예금 100달러였다. 그러나 은행이 대출을 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예금자들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
회계의 단위, 가치의 저장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화폐는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주식, 채권, 부동산, 예술품 등
다른 자산과 구별된다.

은 여전히 100달러의 은행 예금을 보유하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현금 90달러를 가지고 있다. 통화량은 현금과 예금의 합이므로 190달러이다. 이와 같이 은행이 예금의 일부만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를 대출하면 은행은 예금통화라는 화폐를 창출하는 것이다.

놀랍다. 처음 보면 부분지급준비제도에 따른 화폐 창출이 너무 신기해서 믿기 어려울 것이다. 은행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보일 테니 말이다. 우리들의 생활비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들도 그렇게 화폐를 창출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1 은행이 지급준비금의 일부를 대출하여 화폐를 창출하더라도 재산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화폐 창출이 생각보다 신기하지 않을 것이다.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현금이 생겼으므로 이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이 차입자들에게 화폐라는 자산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부채를 창출해 낸 것이다. 화폐 창출 과정이 완료되면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쓰이는 화폐의 양이 늘어나서 경제의 유동성은 증가하지만, 경제가 종전에 비해 더 부유해진 것은 아니다.

화폐의 창출과정은 제1 은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제1 은행에서 90달러를 대출받은 사람들이 그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물건을 판 사람이 받은 돈 90달러를 제2은행에 예금한다고 하자. 제2 은행의 T-계정은 다음과 같다. 제2 은행이 예금을 받고 나면 좌변의 자산에 지급준비금 10%인 9달러와 다시 대출한 대출금 81달러가 있고, 우변에는 예금자에게 돌려줘야 할 90달러의 부채가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제3 은행과 제4 은행을 거쳐 계속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화폐가 예금되고 그 일부가 은행에서 대출될 때마다 화폐가 창출된다.

지급준비율이 10%일 때 궁극적으로 창출되는 화폐의 양은 얼마일까?

최초예금	1 00달러
제1은행 대출	90달러
제2은행 대출	81달러
제3은행 대출	72.9달러
:	:

통화량 증가액의 합계는 1,000달러이다. 무한 등비급수의 합을 구해보면 100달러의 지급준비금이 1,000달러의 화폐를 창출한 결과가 나온다. 1달러의 지급준비금으로 은행제도가 창출하는 화폐의 양을 예금통화승수(money multiplier : 신용승수)라고 한다. 앞에서 설명한 가상적인 경제에서 100달러의 지급준비금에서 1,000달러의 예금통화가 창출되었으므로 예금통화승수는 10이다. 예금통화승수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모두 예상할 수 있겠지만 지급준비율의 역수이다. 지급준비율 10%(0.1)의 역수 '10'이다.

화폐와 가상화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은행을 통한 화폐 창출이 되어도 우리 사회가 더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단지 통화량만 늘어났을 뿐 그와 함께 부채도 늘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화폐를 계속 찍어내 경제를 망쳤다는 얘기는 들어 보았어도,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여러 이유로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가 금본위제를 포기한 이후로 모든 화폐는 법화(法貨)일 뿐이다. 국가의 공권력과 한국은행을 통한 통화관리의 공적시스템이 화폐(한국은행권)의 가치를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그냥 종이조각과 스마트폰 은행 어플에 표시되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출간했던 당시엔 농업만이 국가부(富)의 원천이라고 주장한 중농주의(重農主義)와 왕의 금고에 쌓인 금의 양을 국부의 척도로 삼은 중상주의(重商主義)가 지배적인 사상이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를 새롭게 정의했고, 그의 새로운 정의는 현재까지 GDP(국내총생산 : 한 해에 국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국부는 '모든 국민이 해마다 소비하는 생필품과 편의품(상품과 서비스)의 양'이라는 혁신적인 주장을 통해 중상주의 등 낡은 사상을 일거에 무너뜨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화폐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을 매개하는 수단일 뿐이다. 화폐의 창출 기능 또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를 도와주는 역할일 뿐이다.

화폐를 통해 한 사회의 부가 증가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화

폐든 가상화폐든 마찬가지다. 가상화폐의 블록체인 기술은 여러 분야에 쓰일 수 있는 기술임에 틀림없다. 지금도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접목이 진행 중이라 한다. 기술이 훌륭한 것과 가상화폐에 투자해야 하는 것은 다른 얘기다. 가상화폐 기술을 가진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런데 카지노사업이 유망하다고 강원랜드 가서 도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의 설계자는 기존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지속적으로(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하락해서 가치 보전수단으로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상화폐는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점차 발행(채굴)이 어렵게 설계되었다고 한다. 이들 설계자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는 훌륭했지만 화폐나 통화의 본질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을 GDP 관점으로 보면 한 사회 안에 상품과 서비스가 늘어남을 의미한다. 자동차 한 대를 소유하던 우리 가족이 한 대를 더 구입해 두 대를 소유하고 이용하면 더 부유해진 것이다. 상품과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

라 그의 매개 수단인 통화(달러나 원화)의 양 즉, 통화량을 더 늘려 주지 않으면 교환의 동맥경화 현상이 발생해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 단위의 경제권은 경제성장 만큼의 화폐를 더 찍어내고, 통화량을 늘려온 것이다. 너무도 당연하게 달러의 가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한 하락할 것이다. 가상화폐가 정말로 통화를 대체할 생각이 있다면 채굴량이 경제성장과 연동되도록 다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4년 전 가상화폐 붐이 일던 시절이 있었다. 그 원인은 단순히 비트코인 등의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젊은 층 중심의 많은 투자자들이 코인 투자에 나섰다. 주식시장의 IPO(Initial Public Offering : 기업공개, 상장)를 모방한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많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털었다. 그리고 코인 가격이 하락해 한동안 잠잠하다 지난해 말부터 또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했다. 그 사이 코인의 본질은 달라진 게 없었다. 화폐와 부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가상화폐에 또 휘둘리고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끝까지 버틴 자들이 승자라며 많은 사람이 가상화폐 거래에 또다시 뛰어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코인시장은 미국 유명 전기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의 'Indeed' 트윗 하나에 폭락했다. 두 번째 가상화폐 붐은 이렇게 끝난 것 같다. 지금도 가상화폐의 본질은 달라진 게 없다. 4년 전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 투자자들을 유혹했다면, 이번엔 De-Fi 생태계라는 말로 투자자들을 유혹한 듯하다. 이들은 정부와 제도권에 의해 유지되는 금융시스템을 중앙집중식 금융이라며 이에 대비되는 탈중앙화 금융인 Decentralized Finance가 앞으로의 대세가 될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통화나 화폐가 민주적 통제를 받는 국가의 공권력이나 제도적 관리를 받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은 본질을 간과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올해의 가상화폐 투자 붐은 공적 통제와 제도적 장치가 결여된 탈중앙화된 De-Fi 시스템이 어떻게 돈 많은 악당에게 털어 먹히는지를 보여주며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이다. 이미 가상화폐를 통해 엄청난 자본을 축적한 그 업계 사람들이 현실에 존재한다. 언제인지 예상할 수 없지만, 얼마 후 그들은 ICO나 De-Fi가 아닌 새로운 뭔가를 들고 또 많은 투자자들을 유혹할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가상화폐 붐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화폐에 대한 본질을 생각해 본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가상화폐는 장래에 통화로서의 기능은 하기 힘들겠지만, 투기 자산으로서의 기능은 주기적으로 이어갈 듯하다. 적당한 때 들어가서 적당한 때 이익 실현 후 빠져나올 자신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라. 주식투자 내공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그리고 투자는 본인 책임이다. 남 탓하지 말자.